

Session 03 :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에 대한 소개 (계 4장) (Introduction to the Beauty Realm of God)

I. 마지막 시대의 교회 :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면함

- A. 성령께서는 전 세계적인 예배와 기도 운동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대한 계시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는 이 운동의 핵심 진리 중의 하나이며 시작점이기도 하다.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가르침이다. 왜인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풀어놓는 마지막 시대의 기도 운동에 있어서 연료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 149:4)

- B. 이사야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될 것을 예언했다(사 4:2).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두신 깊은 갈망함에 대해 답해준다. 우리는 아름다움의 영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름다움 없이 우리는 건강하게 설 수 없다. 아름다움은 감성적인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매우 광대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메시아)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 C.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계시는 거룩하게 사는 삶과,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매혹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더욱 강건하게 맞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사랑과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을 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이 이러한 실제 가운데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자 심판자가 되심을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심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 D.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연구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서서히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알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일생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더 큰 측면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결단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부여하신다.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금식 가운데 100배의 순종을 추구하며 깊은 사랑의 목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 E. 갈망은 갈망을 낳게 되기에, 갈망은 더욱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나님에 대한 얕은 지식은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것에 대해 갈망하도록 한다. 갈망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간다.

...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 (시 42:7)

- F.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다. 이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데려가며, 잡아당긴다. 하나님의 강은 갈망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고통스럽다. 갈망은 처음에는 좋게 느껴지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고통으로 변하게 된다. 영적인 갈망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4). 하나님께서는 갈망함을 근거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근거로 부음을 받는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 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갈망하고, 때론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한다.** 이 무렵의 여정은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 우리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영적인 불만족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것(고전 2:10)을 향해 계속해나갈 것에 대한 비전과 결단을 가져야 한다.

II.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계 4-5장)

- A.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캔버스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보좌 주위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배치해두셨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 주위로 놓으신 것들은 피조물에 두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계시록 4-5장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 또는 “하늘의 심포니”라고 부른다.
- B. 계시록 4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계시를 열어주는 15개의 “문들”이 있다. 여기에는 5가지의 주제가 있으며, 각각은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 수 있는 15가지의 독특한 단서들과 길이 있다. 만약 이 길들 중 하나가 당신의 관심을 이끈다면,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이해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III. 요한계시록 4장 개관

- A. 계시록 4:1-7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해할 수 있는 15개의 “길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5가지의 주제들이 있다.
1. 궁극적인 실체 : 하나님의 생명, 보좌, 그리고 외관(계 4:2)
 2.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 그분이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느껴지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계 4:3)
 3. 하나님의 동반자의 아름다움 : 보좌에 앉았으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교회(계 4:4)
 4.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 : 권능의 드러남(번개, 천둥, 뇌성; 계4:5a)
 5. 성령의 불 : 보좌와 스랍과 성도들 위에(계 4:5b-7; 15:2)
- B. 계시록 4:8-10절은 그룹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부르짖으며 노래하는 가장 근간이 되며 궁극적인 하늘의 심포니를 기록하고 있다. 이 노래로부터 다른 모든 노래들이 시작되며 흘러나온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말한다. 보좌 가까이에는 위엄에 압도되어진 그룹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응시할 때에 생기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반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계시는 항

Session 03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에 대한 소개 (계 4장)

상 매혹됨을 일으키며, 이는 행복한 거룩을 낳는다.

- C. 계시록 4:11절은 첫 번째 존귀 찬양(worthy song)이다. 장로들은 부르짖는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이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지고 그분의 존귀하심이 선포되어진 후에, 그분의 아들을 향한 계획과 창조 질서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계 5장). 예배에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이며, 이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질 부분이다. 우리가 두드리는 두 개의 문은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의 문이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 D. 예수님의 존귀하심(합당하심)은 계시록 5:9절과 12절의 주요 초점이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합당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단 두 개의 노래이다. 왜 이 노래가 여기에서 나오는가?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기 이전에 그분 안에 있던 아름다움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다. 계시록 5:9절과 12절의 합당하신 분은 죄 없었지만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범 죄자가 되셨다. 우리는 죄 없으신 이 분이, 전부터 가지고 계신 충만하신 신성에 비해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계심을 이해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부르짖는다,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와 우리를 얼마만큼 높이셨는지를 앞으로 인해, 우리가 “어린양은 합당하십니다!”라고 부르짖는 방식은 바뀌게 된다.

IV. 궁극적인 실체 : 하나님의 생명, 보좌 그리고 인격 (계 4:2)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 4:1-2)

- A.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 초자연적인 생명과 권능의 영역을 말한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순간에 새로운 영역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될 것이며, 부활 후에는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며, 이 진리들이 요한에게 살아있는 지식으로 다가오는 곳에 있었다. 진리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그는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 곳에서, 그는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이 실체를 여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 B.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 이는 아버지의 계획의 최종성과 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 베풀어진 보좌의 모든 실체는 세상의 보좌와 같이 일시적이지 않으며 영원한 보좌이다. 베풀어진 보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임할 것을 명확하게 보증하고 있다. 이 계획은 확실하며, 이 계획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은 멈춰질 수 없다. 이를 목격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사도 요한의 시선은 보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한은 이 보좌를 계시록에서 40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Session 03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에 대한 소개 (계 4장)

- C.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 요한은 보좌에 계신 불같은 열정과 광대한 지식이 있으신 실제적인 한 분을 바라보게 된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실제적인 한 인격이 온 우주의 통치의 중심에 계신다. 그분은 너무나도 주의 깊으시며 사려가 깊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당신을 향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도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V.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 그분이 어떻게 보이며, 어떻게 느껴지며, 어떻게 행하시는지 (계 4:3)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 A. 벽옥(수정)과 같고 - 그분은 빛을 발하는 투명한 광채를 가지고 계시다(계 21:11, 18-19).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아름다움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춰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서서히 밝히실 것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시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 B. 홍보석(질은 붉은색의 보석) 같고 - 그분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불과 같은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계 21:10). 홍보석은 그분의 불타는 열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C. 녹보석 같은 무지개의 모습은 그분 자신의 보좌의 모든 부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긍휼 가운데 행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행하심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무지개는 창세기 9:13-16절에서 처음 발견된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와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3-16)

VI.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움 : 보좌에 앉고,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계 4:4)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 4:4)

- A. 하나님의 보좌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의 존귀와 위엄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요한은 자신의 백성들과 완전하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목격했다. 성도들은 보좌들에 앉게 될 것이다(계 2:28; 3:21; 마 19:28; 눅 22:30).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엄과 존귀를 보게 된다.
- B.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보좌에 앉아있다.
- C.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적 예배 의복(계 3:4-5,18)

D. 장로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계 2:10; 3:11).

VII.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 : 권능의 드러남 (계 4:5a)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계 4:5a)

- A.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실체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아버지의 자신과 보좌로부터 영광스럽고 엄위한 일들이 풀어져 나오고 있다.
- B. 번개 - 하늘의 능력과 광채가 풀어짐 (계 4:5; 8:5; 11:19; 16:18)
- C. 뇌성 - 권능 있는 하늘의 메시지 (계 4:5; 8:5; 11:19; 16:18)
- D. 음성들 (소리들) - 신비스런 하늘의 음악 (계 4:5; 8:5; 11:19; 16:18)
- E.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활동 중, 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지진(계 8:5; 11:19; 16:18)과 우박(계 11:19; 16:18)이다.
- F.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와 뽀뽀한 구름과 심히 큰 나팔 소리와 지진을 경험했다(출 19:16-18). 이러한 부분은 사도행전 2장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6-18)

VIII. 성령의 불 : 보좌, 스랍 그리고 성도들 위에 (계 4:5b-7; 15:2)

5 ...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스랍)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5b-7)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적그리스도)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 A. 하나님의 보좌는 그 앞의 자신의 불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이는 성령님을 드러내고 있다(계 1:4; 3:1; 5:6). 불이 켜져 있는 일곱 등불은 성령의 불로 불타고 있는 횃불이다(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Session 03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역에 대한 소개 (계 4장)

- B. 타는 불로 덮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계 22:1)는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다. 성도들은 휴거의 때에 하늘에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서게 될 것이다(계 15:2).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영원한 도성에 있는 회합의 장소라고 믿는다.
- C. 에스겔은 수정 같은 표면 위의, 무지개가 있는 남보석 같은 예수님의 보좌를 목격했다.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예수님) 같더라 ... 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겔 1:22-28)

- D. 스랍 또는 “불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수행하는 존재들이다.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들은 구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4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또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스랍들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

VIII. 하늘의 심포니의 기저(基底, 근본)가 되는 노래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 4:8)

- A. 거룩하다(Holy)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 B. 정결하다(pure)는 것은 죄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말한다.
- C. 초월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다름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 위에 무한하게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다.